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17 **10**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7 / 10



旅程 (48x48 - Acrylic on Canvas)

감히 신(神)이라 불리우는 그 어떤 영혼도 계절이 바뀌어가는 자연의 순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3천 년 전에도, 3천 년 후에도 철따라 오고 가는 철새들의 순리 또한 어찌하지 못합니다. 불일암에서 바라보는 조계산의 황혼 노을... 돌아오는 철새들을 스님은 늘 '추야진객(秋夜珍客)'이라며 빈가워 하셨습니다.

고현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천한 사람
일요특강	12	생각을 벗어나면 희망이 보인다 - ①
꽃은 흠에서 핀다	16	구절초
따뜻한 이야기	22	상대방이 되어보는 것
시심청심	24	바람에게 부탁하는 이유는 / 오늘의 저 편에
아름다운 마무리	26	10월 결연 대상자 - 신채남(가명)
맑은 글 맑은 생각	28	독일 한국 문화의 날
모단 에세이	31	동양의 미덕
공감으로 소통하십시오	34	언어폭력 / 폭력대화
古典을 읽다	38	명상과 혁명 『비노바 바베』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2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7년 10월 1일 발행 / 통권 272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천한 사람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요. 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요.

글·법 정(法 頂)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은 슈라바스티의 제타 숲, 고독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장자長者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스승께서는 오전에 내의를 입고 바리때와 가사를 걸치고 밥을 빌려 슈라바스티에 들어가셨다.

\* 장자란 덕을 지닌 부자.

그때 불[火]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의 집에는 성화聖火가 켜지고 제물이 올려져 있었다. 스승은 슈라바스티 거리에서 탁발을 하면서 그의 집에 가까이 가셨다.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스승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더니 스승께 소리쳤다.

“까까중아, 거기 있거라.

영터리 사문아, 거기 멈추어라.

천한 놈아, 거기 섰거라.”

\* 신성한 불이 더럽혀질까봐 그는 이와 같이 화를 낸 것이다.

이렇게 당한 스승께서는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에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도대체 당신은

어떤 것이 참으로 천한 사람인지 알고나 있소?

또 천한 사람을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소?”

“고타마여,

나는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조건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나에게

천한 사람을 만드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이치를 말씀해주십시오.”

\* 조금 전까지 이놈 저놈 하면서 서술이 시퍼렇게 대들던 바라문이, 바로 그 자리에서 고분고분 대하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전이나 주석서에는 그럴 만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부처님의 위력에 태도를 바꾸었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 자신의 지나친 언동을 이내 후회했는지도 모른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후회도 곧잘 하는 법이니까.

“바라문이여, 그러면 주의해서 잘 들으시오.

내가 말해주겠소.”

“네, 어서 말씀해주십시오.”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대답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화를 잘 내고 원한을 품으며

간사하고 악독해서 남의 미덕을 덮어버

리고

그릇된 소견으로 음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한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두 번 태어나는 것이거나

이 세상에 있는 생물을 해치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한 번 태어나는 것은 태에서 나는 것이고,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알에서 나는 것, 알은 다시 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골과 도시를 파괴하고 포위해

독재자로서 널리 알려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마을에서나 숲에서나

남의 것을 주지도 않는데

훔치려는 생각으로

이를 말없이 취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사실은 빛이 있어  
돌려 달라고 독촉을 받으면  
'당신에게 언제 빛진 일이 있느냐'고  
발뺨을 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행인을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증인으로 불러 나갔을 때  
자신의 이익이나 제삼자를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僞證)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때로는 폭력을 가지고  
또는 서로 눈이 맞아  
친척이나 친구의 아내와 놀아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가진 재물이 풍족하면서도

늙고 쇠약한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부모, 형제, 자매  
또는 계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상대가 이익 되는 일을 물었을 때  
불리하게 가르쳐주거나  
숨긴 일을 발설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상대가 이해할 수 없는 은밀한 말로 하는 것.  
또 오랫동안 자신의 곁에 제자로 두었으면서도  
철저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일부를 남겨 감추어  
두는 것을 말한다.

나쁜 일을 하면서  
아무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며  
숨기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웅숭한 대접을 받았으면서  
그쪽에서 손님으로 왔을 때는  
예의로써 보답하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찾아온 손님을 기꺼이 맞으라는 교훈은 고대  
인도에서 널리 강조되었다.

바라문이나 사문  
또는 걸식하는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바라문이나 사문에게 욕을 하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음에 덮여  
변변치 않은 물건을 탐내어  
사실이 아닌 일을 말하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며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비굴해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남을 괴롭히고 욕심이 많으며  
나쁜 욕망이 있어 인색하고  
덕도 없으면서 존경을 받으려 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깨달은 사람을 비방하고  
출가나 재가의 사람들을 헐뜯는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사실은 성자(아라한)도 아니면서  
성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전 우주의 도둑이오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천한 사람이오  
내가 당신에게 말한  
이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천한 사람이오.

\* 비구 250계(戒) 중에서 네 가지가 가장 엄한 계  
율인데, 이 계를 범하면 대중과 함께 살 수 없

다. 즉, 비구의 자격을 박탈, 승단에서 내쫓긴다. 이를 사바라이죄四波羅夷罪라고 한다. 바라이는 산스크리트어 파라자카에서 온 말인데, 극악極惡·단두新頭·불공주不共任이라고도 번역한다. 사실은 깨닫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면 큰 거짓말大妄言이 되어 이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다.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오  
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오  
오로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오.

\* 불교와 같은 시대에 인도에서 일어났고 교리도 비슷한 데가 많은 자이나교에서도 그 행위에 따라 귀천이 결정된다고 했다.

나는 다음에 실례를 들겠으니  
이것으로 내 맡뜻을 알아들으시오  
찬다라족의 아들이며  
개백정 마탕가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있었소

\* 찬다라족은 천민의 한 종족. 그들은 주로 도살업에 종사했다.

그 마탕가는  
얻기 어려운 최고의 명성을 얻었소  
많은 왕족과 바라문들이  
그를 섬기려고 모여들었소.

그는 신들의 길  
더러운 먼지를 털어버린 청정한 대도大道에 올라가

탐욕을 버리고 브라흐만[梵天]의 세계에  
가게 되었소  
천한 태생인 그가  
브라흐만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소.

\* 신들의 길이란 <리그 베다>에서는 신들이 천계에서 제장에 오고 가는 길. 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신들 곁으로 가는 길을 의미했다. 그러나 <우파니샤드>에서는 브라흐만의 지혜를 얻은 개아[我]가 이 육신을 벗어난 뒤 화장의 불꽃과 함께 위로 올라가 브라흐만의 세계에 이른다. 일단 브라흐만의 세계에 이르면 이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의 이상이고, 해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교는 이와 같은 <우파니샤드>의 사상을 받아들여, 그것

을 도덕적·정신적인 의미로 바꾸어놓는다. 원시 불교 경전에서는 신들의 길에 해당하는 것을 '브라흐만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베다> 독송자의 집에 태어나  
<베다>의 글귀에 친숙한 바라문들도  
때로는 나쁜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소.

이와 같이 되면  
현세에서 비난을 받고  
내세에는 나쁜 곳에 태어나오  
신분이 높은 태생도 그들이 나쁜 곳에 태어나는 것을

그리고 비난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소.

\* 나쁜 곳을 한역漢譯에서는 악취惡趣, 악도惡道로 번역한다. 흔히 지옥·아귀·축생을 말하는데, 수라修羅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오  
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오  
오로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불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스승께 사뢰었다.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고타마시여,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듯이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눈이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볼 것이다' 하고  
어두운 밤에 등불을 비추어주듯이  
당신 고타마께서는 여러 방편으로  
법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당신 고타마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교법과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고타마께서는  
오늘부터 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저를 재속在俗 신자로서 받아주십시오.”

- 강론 -

**인연이란 마음 밭에 씨 뿌리는 일**  
아직도 그런 찌거기는 남아 있지만, 옛날 인도는 계급의 벽이 너무도 두터웠다. 계급 사이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인습의 벽이 가로막

고 있었다. 제1계급인 바라문이 길을 가다가 제4계급인 슈드라를 만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집으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보아서는 안 될 부정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성수로 눈을 씻고 다른 길로 해서 길을 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한 천한 사람(賤民)은, 인도의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은 가장 낮은 계층을 말한다. 우리의 언어 개념으로 치면 ‘천한 사람’보다는 ‘비열한 인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바라문들은 자기네 계급을 신성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탄생의 가설을 꾸며놓았다. 바라문(司祭)은 자기네가 가장 신성시한 브라흐만의 입에서 나왔고, 제2계급인 크샤트리아(왕족)는 브라흐만(梵天)의 옆구리에서 나왔으며, 제3계급인 바이샤(일반 서민)는 브라흐만의 오금에서,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슈드라(만져서는 안 되는 불가촉 천민)는 브라흐만의 발바닥에서 나왔다고 한 것이다.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지만, 고대 인도 사회에서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허무맹랑한 가설이 그 사회의 규범을 지배했다.

이런 토양에서, 바라문이 되는 것은 출생이나 가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 부처님의 주장은, 그 당시로 보면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양반과 쌍놈의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양식에 따라 귀한 사람도 되고 천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 당시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을 출신 성분별로 보면(주로 아함부 경전에 나온 자료) 바라문 출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왕족, 서민의 순서다. 부처님께서 계행을 지키는데 으뜸[持戒第一]이라고 칭찬받던 우팔리는 출가 전 석가족의 이발사였다. 이발사는 그 당시 천민에 속했다. 그런데 이 천민 출신인 우팔리(優婆離)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교단

의 생활 규범인 <율장律藏>을 편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처님은 <중일아함경> 권 2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강가, 신두, 박슈, 시타 등 4대 강의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본래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바다’로 불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등 4종성種姓에 속하는 사람들이 부처님께 출

가해 그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면, 다만 ‘사문 석자釋子’라고 불린다”

초기 경전에는 ‘바라드바자’라는 동명 이인의 이름이 더러 나온다. ‘발을 가는 바라드바자’도 있다. 발을 섬기는 바라문 바라드바자는 부처님께 욕을 한 인연으로 결국 부처님의 재가 제자가 된다. 인연이란 마음 맡은 씨 뿌리는 것과 같아서 그 씨앗에서 새로운 움이 트고 잎이 펼쳐진다. 인연이란 이렇듯 미묘한 끈나풀이다.

##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회원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만큼 펼쳐집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후원계좌 기부 국민은행 817-01-0253-129 (사)맑고 향기롭게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맑고 향기롭게 소식과 법정 스님 글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www.clean94.or.kr)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후원해 주신 모든 기부자께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생각을 벗어나면 희망이 보인다 - ①

글 • 김창수

제가 오늘 말씀드릴 희망특강의 주제는 '생각을 벗어나면 희망이 보인다.'입니다. 희망특강은 잘난 사람이 하는 강연이 아니라 보통 사람, 잘나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 한번 귀담아 들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4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집필한 것이 아닙니다. 4 명의 아픈 가족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연비를 많이 받고자 책을 냈습니다.

저는 경남 의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산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사투리를 못 고쳤습니다. 건설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하고 웃음치료는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는데 여

기저기서 불러주셔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책을 쓰자'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벗고 희망의 생각을 심자고 했습니다.

사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는 것을 인정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7개의 목차를 가지고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운명이란 무엇인가? 운명이란 이미 정해진 목숨이나 처지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한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인데 우리는 살면서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흔하디흔한 행복한 사람이지만 행복을 버리고 행운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린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행운을 찾겠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스님들께서 '하심'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생각을 벗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경남 의령에 4가구밖에 없는 두메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 명의 아픈 가족이 있습니다. 백혈병과 유사한 희귀병 2명, 암 1명, 치매 1명. 그래서 저는 4억의 빚으로 살아가는 43세의 노총각입니다. 이것이 제가 타고난 운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가냐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는 가족에 비하면 제 삶의 무게는 가벼운 것이지요. 이게 제가 살아가는 운명입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지나가던 지인



이 찍어준 저의 유일한 사진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적 말씀하셨습니다. "울어도 밥 줄 사람 없다, 울어도 젖 줄 사람 없다. 기다려라." 어린 저의 기다림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희망이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희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이 조금이라도 낫고 조금이라도 행복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희망을 기다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자신이 처한 운명을 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신이 처한 운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한 운명은 알고 가는 것이 사람

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열정은 무엇인가? 열정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의 열정은 상냥개비처럼 타올랐다가 순식간에 꺼지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의 열정은 촛불이 되어 자신을 밝히고 가족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열정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선택입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정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과 평화”보다도 농부의 아낙네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자장가 소리가 훨씬 훌륭하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것이 저의 열정입니다.

저의 대학생활 시작은 공사관 등짐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금액으로 20일 등짐을 지면 등록금이 해결되

었습니다. 물론 장학금을 7년 내내 받고 다녔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말기라 수술도 불가능하여 한 달 내내 눈물로 지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무시고 나면 부산 송도 바다에 내려가서 술에 취해서 울고 파도 소리에 울고 서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께 하나도 해 드린 것이 없는데 가셔야 된다고 하니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가실 운명이 아니셨나 봅니다. 한 달 후에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운동 안하면 죽어요. 저 장가가는 거 보셔야지요.” 어머니 손을 잡고 병원 계단을 두 달 동안 오르내리락했습니다. 기적처럼 어머니는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재발도 여러 번 했고 지금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만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백배 낫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대

학원에 가서 박사를 마치고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대학원을 포기하고 건설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룩하던 그 날, 누나와 동생은 혈소판을 투여해도 피가 멈추지 않는 희귀성 급성혈소판감소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100만 명 중에 1명 있는 병입니다. 서울대병원에 달려갑니다. 교수 말이 백혈병과 유사하니 골수이식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때 2003년도에 골수이식 수술비가 7,0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7,000만 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살아있어라!”고 말하고 아프리카 리비아로 출국했습니다. 리비아에서 돈을 버니까 내 동생이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이것이 두려움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던 2003년 어느 날, 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사실만큼 사셨지만 제 인생이 너무 서글퍼졌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무슨 업보가 있기에... 많이 울었습니다. 남자가 왜 우냐고요. 울면 속이 후련해지고 또 다른 희망이 생깁니다. 리비아에서 3년 동안 1억 5천을 모아서 2005년 한국에 돌아왔지만 동생의 골수이식수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백혈병과 유사하지만 골수이식을 하는 것과는 다른 병이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호 계속)



## 구절초

글 • 김기철(도예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활짝 웃고 있던 구절초 꽃들이 어느새 시들어 가고 있다. 화사한 가을 햇볕을 받아 미풍에 춤을 추듯 향기를 날려대던 꽃떨기들이었던 이제는 후줄근한 꽃잎을 늘어뜨린 채 찾아드는 별나비도 귀찮은 양 고개를 외로 틀고 있다. 나는 저 추하게 변모해 가는 꽃을 들여다보면서 공연히 마음이 서글퍼진다. 꽃봉오리가 맺히고 하루가 다르게 살이 오를 때는 내 가슴마저 부풀어 오르고, 그러다가 마침내 꽃잎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활짝 피어나면 손뼉이라도 치고 싶었다. 이렇게 유달리 이 꽃에 대한 애착이 가는 것은 나를 아련한 과거 속으로 잠기게 하는 한두 가지 까닭이 있는 것

이다.

실은 까닭이 있기 전부터 나는 구절초 꽃이 그냥 좋았다. 이 꽃은 가을 등산에서 활활 타는 단풍이나 아삭거리는 억새풀 산등성만큼이나 나를 감동시켰다. 깎아지른 바위틈에나 낙엽진 잡목숲 사이에 가끔 눈에 띄이는 그 외롭게 숨어 있는 가녀린 모습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내 마음을 잡아끌었는지 모른다. 나는 그 톡 쏘는 듯한 향기에 매혹되어 으레 한두 가지를 꺾어 등산모에 꽂고 기분을 내곤했다. 국화향보다 연하고 훨씬 품격이 높은 듯한 신선하면서도 토속적인 냄새는 가을의 정취를 물씬 맡게 해 주었던 것이다.

지금부터 사오 년 전인가 싶다. 추석에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갔는데 뜻밖에도 봉분 한쪽 기슭에 이 구절초 꽃이 피어 있는 것이 아닌가! 메마른 잔디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피어난 이 꽃이야말로 생전의 어머니 모습처럼 너무나 섬약하고, 그렇기에 더욱 맑고,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고와 보였다. 어쩐지 외롭게 그가는 목을 내뺨고 우리를 반기는 듯한 잔잔한 미소는 흑시라도 어머니의 혼이 이 한송이 꽃으로 환생하게 아닌가 싶어 북받쳐 오르는 그리움을 누를 수가 없었다. 지금만 같아도 우리 자식들이 살만 해서 뭐라도 원하시는 것을 해 드릴 수 있겠건만 어머니 살아생전엔 너무나 가난했다. 평생을 가난 속에 배를 굶아가며 우리들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신것을 생각하면 이것저것 지지고 볶고 해서 싸가지고 와 펼쳐 놓고 절두어 번 꾸뻑하고 고기 한 점 들지 않았신 그 음식을 저희끼리 다 먹어

치우는 것으로 자식 된 도리를 다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싶었다. 그렇다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지금도 길가 상점의 홍시를 보면 가슴이 시려온다. 가을이면 무엇보다 홍시를 좋아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아무리 돈이 궁해도 가을 한철 퇴근길에는 홍시 두어 개씩을 사들고 들어가 기쁘게 해 드렸을걸……. 이제는 그걸 사가지고 들어가 드릴 분이 없는 것이 마음 아픈 것이다.

나는 다음 해 한식에 산소 언저리 여기저기 나 있는 구절초 뿌리를 캐어다 집 뒤 돌출대 위에다 심었다. 무엇보다 그렇게 좋아하는 꽃을 울안에 심어놓고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 뜻밖에 소원을 풀게 된 셈이었다. 그러나 그해 여름 장마로 돌출대는 무너지고 귀엽게 자라고 있던 구절초는 실패가 되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축대를 쌓고 또 캐다 심었더

니 그 가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해마다 퍼져 올해는 돌촉대를 덮을 만큼 풍성하게 어우러져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뒤 울안에 구절초 꽃이 둘러 있게 되니 그 옛날 고향집 대청 뒷문으로 들여다보이던 뒤꼍 같았다. 자잘한 냇돌로 나지막하게 쌓은 축대 사이사이에는 이름 모를 야생초가 수도 없이 나있고 돌팍들은 이끼가 끼어 심산유곡을 방불케 할 만큼 시원한데 거기다 군데군데 구절초 꽃이 피어 있는 것이다. 꽃들은 탐스럽지 않고 가냘픈 목에다 핏기 없는 살색을 띠고 수줍어하는 모습이었다. 그때만 해도 구절초는 만병통치약인 양 가슴이 답답하거나 배가 아프면 달여 먹었다. 우리 어머니 역시 배가 아프다고 하면 뒤로 돌아가 그걸 떼어다 달여 놓고 '엄마 손이 약손이다'를 끊임없이 뇌이면서 아픈 배를 슬슬 문질러주셨다. 그러면 어느 사이 배는 멀쩡히 낫고 후닥닥 뛰어나갔던 것이다.

구절초는 결코 요란스럽지 않고 조출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들국화처럼 아무데나 마구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갈하고 메마른 자리를 골라 뿌리를 내려 호젓이 맑게 피어난다. 서양의 마거리트에 비하면 그 품격이 월등하게 우아하고 사랑스럽다. 창백한 듯 고운 흰 빛에는 수줍게 홍조를 띠고 꽃판은 황금색으로 화려하다. 그러나 시골 아낙네마냥 수더분하고 다소곳한 것이다. 그리고 그 꽃만이 지니고 있는 순박한 고향의 향취 같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다.

나는 어째서 이 꽃이 어머니의 이미지를 연상케 해주는지 잘은 모른다. 다만 어머님 산소에서 옮겨 심고 최근에 들어서야 그런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게 되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이 분해되어 흙으로 환원될 때 그 기운이 증발되면서 틀림없이 뿌리를 통하여 흡수되었을 테니까 말이다.

생전의 어머니는 핏기가 없이 너무나 약하셨다. 살색이 희고 손발이 길쭉길쭉한 가는 몸매는 애초부터 좋은 집안에서 고생 모르고 고이 자라셨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신답시고 외삼촌들을 따라 만주로 떠나고부터는 고생길로 들어선 것이다. 초판에야 큰집이고 친척들이 식량 뒷박이라도 갖다 주어 자식들을 굶기지 않았겠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 될 리 없었다. 그렇다고 두 팔 걷어붙이고 떡목판이라도 이고 다니며 팔아 어린 자식들을 끓여 먹일 그런 분은 못 되셨다. 며칠씩 헛거리가 없어 굶는 한이 있어도 이불 꼭 뒤집어쓰고 누워 있을망정 어디가 구차한 소리를 결코 못하시는 성미셨다. 결국 전디다 못해 어머니는 젓먹이인 나만 업고 백 리나 넘는 외가를 찾아갔으나 반길 까닭이 없었다. 며칠이고 눈칫밥을 얻어먹다 보면 구박이 심해져 또 보따리를 싸가

지고 눈길을 나서야 했다. 몇 번이고 눈 속에 빠져 죽자고 등에 업힌 나를 돌아보고 하니 업힌 놈이 싫다고 고개를 마구 내저었다는 말씀을 두고 두고 하셨다.

어머님은 너무나 현실적인 분이 못 되셨다. 일하기를 싫어하셔서 빨래나 밥을 할 때는 늘 투덜거리셨다. 그러나 인정은 많으셔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무엇이든 주지 않고는 못 배기셨다. 가난한 집에서 아무것도 줄 게 없을 것 같은데도 용케 남에게 내놓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었다. 인심도 뭐가 있고서 써야지 있는 대로 퍼주고 나서 내일은 어찌하는 것인지 야속할 따름이었다. 지금도 내 머릿속에는 어제 일처럼 생생한 수십 년 전의 일이 떠오른다. 바로 해방이 되던 해 봄 운동회 때의 일이다. 그 해는 유난히 먹을 것이 없어 시골에선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을 하는 처지였다. 그래도 모두들

내 자식 운동회라고 보리개떡이라도 찌고 계란 한 개라도 삶아 가지고 와 모처럼의 가족 나들이를 즐기는 것이었다. 나아말로 이 날 점심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의 눈을 피해 운동장 위 산 기슭으로 슬금슬금 피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 내 이름이 꺾전을 스치는 것 같았다. 이상히 여겨 신경을 곤두세우니 분명 어머니의 음성인 저 아래 운동장 가에서 들려왔다. 바라보니 구부정한 모습에 한 손에는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 밥맛을 잊지 못하고 있다. 내 평생 그 밥맛만큼 좋은 것을 체험해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한 그릇의 녹두밥이었다. 당신은 한 술 뜨시지도 않고 옆에 앉아 남기지 못하게 하셨다. 대체 쌀은 어디서 냈고 녹두는 어떻게 마련하셨을까? 그 귀신 더버기 같은 뒤주 밑바닥 네 귀퉁이에 박혀 있던 쌀톨을 다 긁어내고 녹두는

씨 하려고 매달아놓았던 것을 내린 게 아닐까? 나는 모르겠다. 오십 년이 다 되어가는 이제까지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는 며칠 전 뒤 돌출대의 구절초 꽃이 하도 좋아 몇 줄기 잘라다 꽃병에 꽂았다. 꽃들은 다투어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느티나무 통목이 받치고 있는 꽃떨기들은 전에 없던 싱싱한 향내를 내뿜으며 천상의 이야기라도 들려주는 것 같았다. 혹 저 꽃잎 속 꽃술에 저 세상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승에서 우리를 안혀 놓고 해 주시던 그 술한 옛날 이야기를 지금은 누굴 안혀 놓고 하고 계실지……. 나는 그런 어머니의 무궁무진한 옛날 이야기를 까맣게 잊고 옮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 분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이든 재미가 있

었다. 아마 소설을 쓰셨으면 훌륭한 소설가가 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허술한 내용도 기가 막히게 각색을 해서 그럴듯한 희곡을 만드는 재능을 지니셨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어머니의 분신처럼 곁에 앉아 바라고 호뭇해하던 꽃도 결국은 시들어 빠져버리고 이제는 빈 꽃병

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다. 아직은 다른 꽃을 꽃고 싶지가 않아 그대로 놔두고 있다. 어렸을 때 심술부리는 나를 떼어놓고 멀리 가버린 엄마를 그리던 마음이 바로 이런 기분이 아닐까? 어쩔 수 없이 내년 봄의 새싹과 가을의 꽃을 기다리며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기철** · 자연에 대한 관심이 깊어 40대 중반 교직을 떠나 흙과 벗하는 삶을 선택한 그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의 보원요(寶元窯)에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다. 도자기는 주로 백자와 그 특유의 자연색 도자기인데 식물 잎사귀나 꽃, 열매, 물고기, 곤충 등 다양한 자연 소재의 작품들을 내놓고 있다. 그의 작품은 대영 박물관을 비롯해 미국, 스웨덴 등 유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강좌 안내(짜수 달 매주 수요일)

천연화장품 강좌는 만들어 쓰는 약간의 불편함은 분명 있지만, 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만 끼치며, 내가 직접 만들어 쓰는 생태적인 삶을 위한 또 하나의 실천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는 짜수 달(2, 4, 6, 8, 10, 12월) 첫째 주에서 넷째 주 수요일에 삼푸, 로션, 에센스, 비누&스킨 순서대로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시간 : 오후 1시 30분
- 장소 :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소모임방)

## 상대방이 되어보는 것



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의 놀림으로 인해 울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아이가 친구들과 인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탁했습니다.

수업시간이 되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끈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는 오른손을 뒤로 돌려 허리띠에 끈으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에 재미있어 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수업이 끝날 때까지 오른손을 쓰지 않고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체험해 볼 거예요."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묶었던 끈을 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자 반 아이들은 오른손이 없는 친구를 찾아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네가 그렇게 불편할 거라곤 생각 못 했어. 너는 오른손을 안 쓰고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놀려서 정말 미안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조금 다르다고 편견으로 바라보기 전에 아주 잠시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할 때 세상 온도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 # 이 달의 명언

편견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언제일지라도 절대로 늦지 않다.  
- H. D. 도로우 -

\* 출처 : 따뜻한 하루

## 맑고 향기롭게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에 입고되지 않는 소품들은 비정기 녹색나눔장터와 바자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 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 바람에게 부탁하는 이유는

글 • 백서은(시인)

청구서 날아오듯	열여덟에 아버지 잃고
마감 날 다가오듯	피지 못한 애환
피로가 등줄기 짓누를 때	당당하게 살자며
내킨 걸음 찾아가게	지친 삶 숨 고르고
	늦둥이 희망 걸어
감나무 그늘 아래	모진 맘 내다뿜는 꾀꿍함 지냈
주렁주렁 달린 식솔 거두는 일로	는데
오장육부 문드러지는 일 제쳐 놓고	
버는데 소질 없고 쓰는데 일가견	소리쳐 불러도 눈물겨워 외쳐도
있으니	감감히
노후 대책 논의하려니 기다리소	건네던 말과 울컥 더미만 감돌아
	바람아 바람아
	바람이 전해주겠소

## 오늘의 저 편에

글 • 박정숙(독자)

어느 날	날이 밝아오면 해와 동무하고
홀쩍 떠나온 그 길이	밤이 되면 별과 달과 동무하며
고향을 등진 머나먼 타향살이	
	들을 말도 할 말도 다 잊은 채
객지에 발 디디고	내 가슴에 아련하게 밀려오는 추
신산한 청춘을 견디며	억을 더듬으며
살아온 많은 시간들	덧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가리
이제 늙어진 날	
그리운 사람들	
어딘가로 홀쩍 다 떠나면	

백서은(본명 영분) • 개인시집『하루 안에 있는 그대』『동인천』이 있으며, 한국문인협회 인천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10월 결연 대상자 - 신채남(가명)

### 올해 겨울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우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홀로 다가오는 겨울을 걱정하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올해 83세의 고령으로 홀로 지내시는 신채남(가명)어르신입니다. 지하방, 전기장판, 담요, 내복, 양말, 장갑, 창문과 문을 막을 비닐..... 작년 겨울의 추위로 부터 어르신을 지켜준 고마운 물품들이지만 몸속으로 파고드는 한기를 모두 막아줄 순 없었습니다. 소득이라곤 기초연금 20만 원이 전부인 어르신은 방안에 가득한 한기를 몰아낼 만큼 가스보일러를 충분히 돌릴 수 없습니다. 추운 날씨에 보일러가 열지 않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끔 보일러를 작동시킬 뿐이었습니다. 지난겨울,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내복, 양말, 장갑을 겹겹이 끼입고 전기장판에서 묵묵히 추위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어르신은 전북 진안의 가난한 농부의 집,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르신이 5살 때 돌아가셨고 경제적 어려움에 어르신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뿐이 울타리였던 어머니도 19살의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정 붙일 곳을 찾지 못했던 어르신은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어르신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이 없었던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막노동과 같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어르신은 늦은 24살의 나이에 할머니를 만나 식도 올리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일찍 부모를 잃고 기댈 곳 없이 외롭게 지내던 시기에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를 낳았지만 경제적으로 능력이 부족했던 어르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대물림 되었습니다. 네 명의 아들 모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생업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들은 태어난 서울을 떠나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끔 연락은 되지만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이 올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르신은 83세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올해 초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받는 돈 20만 원 중 장기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비용인 14만 원을 지불하고 나면 6만 원 남짓한 돈으로 한 달을 버팁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어 매월 일정 병원비 또한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 달 6만 원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고령의 어르신께는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는 어르신이 영양 높은 식사, 깨끗한 의복, 따뜻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생계비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이 두려운 어르신이 올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온정을 기대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독일 한국 문화의 날

글 · 강인철(회원)

고운 단풍 붉은 가을, 베를린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한국 문화의 날> 축하공연을 했다. 공연이 끝나고 독일 주재 대사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순간 우리는 벅찬 가슴에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다.

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그 해 여름, 삼복더위를 견디며 공연준비를 하느라 땀도 어지간히 흘렸었다. 루프트한자에 몸을 싣고 인천공항을 이륙하고 나서야 정말 '독일에 가는구나' 실감이 났다. 요즘은 열세시간 직항이지만 과거 파독(派獨)광부와 간호사들이 갈 때는 중간에 하루를 묵으며 이틀이나 걸렸다고 한다.

50여 년 전,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땀 흘려 일했던 라인

강변 탄광촌에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환영식장에서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하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는 더 이상 노래를 잊지 못하고 행사장은 눈물바다가 됐다고 한다.

파독 광부들은 한 달에 1,400~1,600마르크(한화 28~32만 원)를 받아 방값, 식대 빼고 1천 마르크쯤을 손에 쥐었고 그 중 평균 7백~8백 마르크를 고국의 가족에게 보냈다. 그 후 쉬는 날에도 다른 일을 더하여 송금액을 늘린 결과 1963년부터 1977년까지 광부 7,936명과 간호사들이 고국으로 송금한 액수는 자그마치 1억 153만 달러로 당시 우리나라 연간 수출총액의 2%에 해당했

으며 그렇게 흘린 땀의 대가는 가족의 삶과 고국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10위권으로 도약하는데 초석이 되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파독 1세대는 어느새 70~80대의 어르신이 되었고 올곧게 성장한 2세대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중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무럭무럭 자라는 3~4세대들은 내일의 기둥으로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는 게 동포들의 이구동성이다.

그들의 구심체인 '베를린 한인회'로부터 한국 문화의 날 축하공연 초청장을 받았을 땐 기쁨 반 두려움 반이었다.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는 연예집단도 아니면서 교포사회의 큰 행사에 누가 되거나 않을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다. '국악사랑 휘모리' 임원진의 수차례 걸친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니 최고의 기량으로 최선을 다하자였다.

드디어 무대에 막이 오르고 김진복 회장과 김의택 총영사의 인사말이 진행되면서 분장실과 대기실은 긴장감이 고조됐다. 그것은 공연 오프닝이 우리 차례였기 때문이다. 전통농악을 현대 감각에 맞도록 재구성한 영남가락 길군악을 조용히 내고 쌍진풀이와 법고놀이로 달군 다음 별달걸이를 빠른 가락으로 휘몰았더니 객석에서 환호가 터지고 현지 독일인들조차 기립박수로 답해 주었다.

재 독일 한글학교 어린이들의 아리랑 합창에 이은 전통무용 '매화춤'은 몸을 던지듯 허공을 흠치고 부채 끝 하늘거림이 매혹적인 데다 그 배경음악이 성주풀이라 이를 알아차린 동포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흥에 취하기 시작, 국악의 멋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어 한인회에서 선보인 군무는 고국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었음에도 전혀 녹슬지 않은 교민들의 춤사위가 외려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말았다.

1부가 끝나고 잠깐의 휴식시간, 동포들 간의 정다운 만남은 그냥 지나치는 의례적인 반가움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며 삼삼오오 나눠먹은 김밥이랑 떡과 잡채는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맛있었다.

2부 첫 순서 역시 우리가 준비한 사물놀이로 쇠(천동소리)·징(바람소리)·장구(빛소리)·북(구름소리) 4인만으로 연주를 했다. 이는 서양의 클래식처럼 명상하듯 눈을 감고 감상하는 음악이 아니라 역동적인 몸놀림과 치배의 가슴에서 우러난 신명이 동포들에게 공감으로 전달된 영혼의 소리였기에 '상쇠'로써 더욱 보람이 컸다.

현지 3세 어린이들의 부채춤 재롱잔치에 한껏 흥이 고조된 행사 마지막 하이лай트는 소위 난타로 알려진 모듬북으로 이는 농악에서 맥을 이었으나 쌍북놀이를 뛰어 넘은 새로운 장르의 타악(打樂)이라 현대인

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인기 최고였음은 국내외가 다르지 않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영락없었다.

1천여 명의 입장객 중에는 독일 현지인들이 절반이나 됐음에도 나라와 민족의 벽을 뛰어넘은 공연 열기가 베를린 한인회의 반석 같은 저력을 실감케 해주어 여간 기쁘지 않았다. 독일의 수도 한 북판에서 국악 사랑 '휘모리'와 함께 한국문화의 날이 이토록 성황을 이루다니 꿈만 같은 무대였다.

오래 전부터 베를린 한인회에서 기획하고 있으나 일본대사관의 간교한 방해공작으로 보류 중이라는 1936 베를린 올림픽기념 <대한민국 손기정 마라톤대회>도 하루속히 일본의 벽을 뛰어넘고 당시의 올림픽 스타다움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여보란 듯 재현됐으면 좋겠다. 그날이 오면 더 푸지고, 더 멋지고, 더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으로 축하해 주고 싶다.

## 동양의 미덕

글 • 김기림(시인, 문학평론가)

흔히 문화의 발생을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용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없어서 아무 일도 아니 된다는 탄식을 우리의 주위에서 듣는다. 그러나 그 역은 반드시 진리가 아니다. 그 반증으로 나는 얼른 미국을 들 수가 있다. 물질과 시간이 함께 너무 많아서 걱정이면서도 나는 아직 <페페르모코> [1937년 강도 상습범 페페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그린 프랑스 영화]에 필적하는 한 편의 미국 영화를 본 일이 없다.

임화 씨가 어떤 사석에서 미국 사람이 애수哀愁를 알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 문화가 생겨나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 옳다. 연애나 골프나 드라이브나 외

식에 행복스러운 동안 사람들은 문화에 대한 화제를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신앙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생활의 최고 이상이라고 한다. 한 주일 동안 출근한다. 주말에는 해변이나 유원지로 가는 차를 탄다. 테니스를 하고 카드를 치고 그리고 가족이나 애인을 적당히 사랑한다. 일요일에는 예배당으로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 흘려 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국민이라고 자처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은 족할까? 가령 그러한 엘도라도나 천국에 초대된다고 하면 헉슬리 씨나 지드 씨의 위장이 이 자양이 많은 행복



의 향연에 잘 견뎌 나갈까가 나는 의심이 난다.

행복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사 상 태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름다운 아내를 동반한다든지 귀여운 아기들을 안고 데리고 저녁 거리를 산보하면서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위대한 사상이 움직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신혼여행 중에 발생했다는 철학을 나는 아직 구경한 일이 없다.

이러한 서양적 행복의 내용에 하나 더 동양적인 조건을 가할 때 나는 비로소 그 행복에 견딜 수 있으리라. 그것은 명상이다. 호화스러운 궁전이나 휘황한 야회夜會를 차라리 피해서 한 떨기 수선화를 가꾸거나 어린 사슴의 등을 어루만지는 시간에 오히려 더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판은 로젠베르크 씨도 명상을 북방적 게르만의 명예 있는 특성이 라고 들지는 않았다. 그러면 역시 그것은 동양의 미덕의 하나인가 보다.

혹은 가족과 사무를 함께 버리고 혼자서 산이나 바다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시골이나 극장으로 보내 놓고 다만 혼자 자빠져서 달을 쳐다보는 괴벽의 효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역시 동양 사람일 성싶다.

위대한 시나 법칙이나 설계나 정책이 우연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사실은 전화 소리와 내객과 서류에 압도되는 시간이 아니고 이러한 게으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느 회사의 중역이 된다면 나는 유능한 사원은 가끔 여비를 주어서 온천으로 보내겠다. 격무와 저녁밥과 잠자리와 아침밥과 격무 사이를 매일같이 왕래하는 것만이 일생이라면 역사가는 아무런 새로운 돌발 사건도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식 비즈니스 시스템은 말하자면 사상의 침입을 교묘하게 제외해 버린 당선 스케줄이다. 포드 씨가 무서워하는

것도 사실 사상의 탄생이었다.

나는 물론 “노승老僧이 망세월忘歲月하고 석상石上에 간강운看江韻” 하는 그러한 허무에의 도망을 권하는 것은 아니다. 동양에는 확실히 그러한 유의 명상이 횡행했다. 굴욕과 무위에 찬 낯은 동양의 풍속이다. 젊음은 동양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러한 미풍은 아니다. 흘러가는 구름 위에도 오히려 역사의 물굽이를 그려 보고 바람 소리 속에서도 세기의 잡담雜談 [사람들이 많이 몰려 북적

복적이고 복잡함] 밑에서 굴뚝거리는 새로운 동력을 만져 보는 일이다. 고독과 정일靜益 [원본에는 ‘정익(靜益)’] 으로 표기되어 ‘고요한 웃음’이라는 의미겠으나 여기서는 ‘정일(精益)’의 오기로 보아 매우 조용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음 속에 있는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적인 잡념을 거두어 버리고 본질적인 것과 가장 잘 마주 설 수 있는 때문이다.

〈조선문단〉, 1939년 9월

\* 출처 : 모단 에세이 / 방민호 엮음

---

#### 김기림(1908-?) · 시인, 문학평론가

본명은 김인손(金仁孫)이고 필명은 편석촌(片石村). 함경북도 학성군 학중 출생으로 서울 보성고 등보통학교를 거쳐 일본 니혼대학 및 이후 도호쿠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구인회(九人會)의 구성원으로 1930년대 초·중반 조선의 모더니즘 시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동양에 관한 단장) 등의 평론을 통해 문명사적인 시각에서 조선 사회와 그 문학 문제의 요점을 갈파하는 식견을 보여주었다. 시집으로는 〈기상도〉(태양의 풍속)〈바다와 나비〉, 수필집으로 〈바다와 육체〉등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 언어폭력 / 폭력대화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비폭력은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긍정적인 면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기심, 탐욕, 미움, 편견, 의심, 공격성  
대신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 이해, 감  
사, 연민, 배려가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의 대화방식을 바  
꾸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의 대화가 달라지는 것은  
따뜻한 세상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  
이다.

-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 아룬 간디  
(비폭력간디협회 설립자) -

비폭력대화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대화법입니다. 임상심리학 박사 마샬  
로젠버그가 만든 대화법으로 그 효  
과를 인정받아 유엔은 세계의 갈등  
지역에 비폭력대화 전문가를 파견하  
고 있고, 이스라엘은 모든 교사가 비  
폭력대화를 의무적으로 배웁니다.

이 대화법의 명칭을 의역하여 '공  
감대화'로 부르고 있으며, 우리의 언  
어와 현실에 맞추어 알맞게 다듬어  
공감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  
감대화는 우리가 편안할 때나 불편  
할 때, 어떤 상황이더라도 솔직하게  
표현하여 소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  
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가, 가정에  
서 부모가 이 대화법을 익힌다면 우  
리 사회가 공감에 기반을 둔 긍정의  
사회가 되는 변화의 꼭지가 될 것으

로 생각합니다. 담임교사가 공감대  
화를 하면 그 반 학생이 모두 공감  
대화를 하게 되며, 부모가 공감대화  
를 하면 자녀들이 저절로 공감대화  
를 하게 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정에서 학  
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  
어졌습니다. 2010년 10월 5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공포하였고, 2011  
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공포해  
시행 중입니다. 이 조례로 인하여 이  
제 학교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언어  
폭력이 늘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  
을 나누는 것에 서툴고, 상대를 비난  
하는 것에 익숙한 교사 및 교직원들  
이 학생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있  
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아래와 같은 말을  
학생이 되어 들었다면 어떤 느낌인  
지 적어보세요. ('기분 나쁘다' 라는

표현보다 더 상세한 느낌을 찾아 적  
어보세요. 예: 위축된다, 답답하다)

•너는 매번 숙제를 이렇게 밖에 못하오  
니?

학생의 느낌 \_\_\_\_\_

•청소하라니까, 이게 지금 뭐하는 거냐?

학생의 느낌 \_\_\_\_\_

•수업 중지면 제발, 자리에 가서 앉ारा,  
좀!

학생의 느낌 \_\_\_\_\_

•우리 반 성적이 이번에 또 떨어지면, 가  
만 안둔다!

학생의 느낌 \_\_\_\_\_

•왜 학교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니?

학생의 느낌 \_\_\_\_\_

나라에서는 국민이 주체이고, 학  
교에서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야 하겠  
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이 되  
지 않고, 객체가 되어 운영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물론 학생회가 조직되  
고, 학부모회가 만들어져서 학교 운

영에 참여하지만 그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견이 동등한 무게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어야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교사,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보다 결코 낮게 반영되지 않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책임을 배우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힘들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예전에 비하여 힘들다고 합니다. 미래 직업 선호도에 '교사'는 2위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업을 떠나고 싶은 직종은 '교사'가 1위라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학교가 교사도 학생도 힘든 곳이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교사도, 학생도 행복해지는 학교가 되기 위하여 공감대화를 활용하는 교사들이 늘기를 바랍니다.

위의 5가지 선생님의 폭력대화를 들은 학생은 위축되어, '나는 이 정

도 밖에 못되는군…….' 하고 생각할 것이며, 성적으로 경고를 듣고 나면 '나의 성장을 위하여 공부하자'라는 생각보다 '혼나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해.' 라고 생각하겠지요?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느냐,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느냐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을 공감대화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네가 해 온 이 숙제를 보면 안타까워. 네 의견을 넣어서 써오기를 바랬거든.
- 청소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당황스럽네. 바로 청소시작하면 어때니?
- 수업 종치면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려주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줄래?
- 우리 반 성적이 이번에는 꼭 오르기를 바라는데, 우리 반 모두, 각 과목별로 지난 시험보다 1시간 더 공부하기 해볼까?

- 학교에서 규칙을 정했고, 이 규칙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따라주기를 바라거든. 이 규칙을 지키기 어렵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해줄래?

우리의 대화가 달라지는 것이 따뜻한 세상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공감대화를 마음에 담아 오늘 이 첫걸음을 내딛어보시겠어요?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에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여러 회원,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해주시는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순수모임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면 종교, 종파에 상관없이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뜻을 함께하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전자 우편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 전화 : 02-741-4696

##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과 법정 스님의 법문 영상, 글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앱(APP)을 구축하였습니다.

- \* 앱 설치방법 : 모바일(스마트폰) - 구글 play스토어 - 맑고 향기롭게 검색 - 다운로드 - 설치

## 명상과 혁명 『비노바 바베』

글 • 윤부혁(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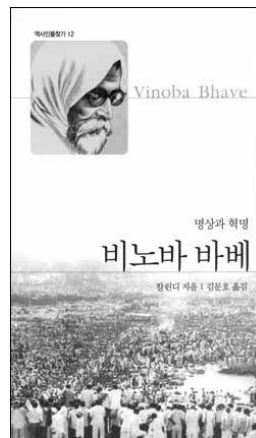
비노바 바베(Vinoba Narahari Bhave, 1895~1982)는 인도의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이자 사회 개혁가이다. 이 책은 비노바 바베(이하 '비노바'로 칭함)를 평생 옆에서 지켜 본 이가 그의 행적과 육성을 대필한 회고록이자 평전이다. 이 책은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비폭력을 실천하고 영성을 추구했으며, 사랑의 힘을 간직해 온 위대한 인간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1895년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으로 태어난 비노바는 열 살의 어린 나이에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아가기로 서약하였다. 비노바는 출가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인도 독립을 위해 헌신하기로 한다.

1940년 간디를 만나 '비폭력 저항 운동(satyagraha, 사티아그라하)'에 합류했고, 간디는 '사티아그라하'를 이끌 최고의 지도자로 비노바를 선택했다. 비노바는 인도가 독립을 얻자 20여 년간 인도 전역을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지주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해 토지 6분의 1을 공유하자고 호소했다.

"도둑질은 범죄지만 많은 돈을 쌓아놓는 것은 도둑을 만들어내는 더 큰 도둑질입니다. 당신이 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다면 땅 없는 가난한 이들을 여섯째 아들로 생각하고 그를 위해 소유한 땅의 6분의 1을 바쳐주십시오."

그는 전대미문의 '부단(bhoodan : 토지헌납운동)'을 시작했다. 인도 전



역을 8,000km 이상 걸어 다니며 쉬 없이 지주들을 만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땅을 내어 주도록 설득하여, 스코틀랜드만 한 거대한 토지를 헌납받았다. 그리고 그 토지 전부인 약 400만 에이커의 거대한 토지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었다.

### 1. 간디가 존경한 사람

비폭력 운동을 이끈 대표적 지도자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이의 없이 마하트마 간디를 꼽을 것이다. 그

러나 간디는 비노바를 가리켜 '인도가 독립하게 되면 인도의 국기를 처음으로 계양할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인도 최고 계급인 브라만으로 태어나 인도의 독립과 가난한 사람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바탕은 '노력하는 맑은 영혼'이었다.

영국의 통치를 받는 인도가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비노바는 간디와 함께 비폭력 투쟁을 전개했고, 물레를 돌리는 일이 이러한 투쟁을 상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1923년 비노바는 '사티아그라하' 사건으로 체포 후 투옥되어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중노동을 선고받는다. 그는 진정한 아쉬람(힌두교도들이 수행하며 거주하는 곳)의 생활을 감옥에서 경험하였다고 술회하였다. 무소유의 서약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감옥이며 매일 규칙적인 생활로 심신을 수행하니 감옥보다 좋은 곳이 없다는 것인데,

영성을 추구하며 사회변혁을 꾀했던 그의 자세를 알 수 있다. 그는 인도의 상류층인 브라만을 상징하는 시카(머리를 상투로 묶은 것)를 스스로 자르고, 코란과 성서를 깊이 있게 연구했으며, 불교와 자이나교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으로 공부한 끝에 자신의 종교인 힌두교를 버리게 된다. 악명 높은 참발 계곡의 강도들조차 그의 인격에 탄복하여 비노바 앞에 무릎을 꿇었다. 비폭력이 폭력주의자들에게 승리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 2. 카스트와 계급, 언어와 종교의 장벽

비노바가 거주하던 공동체(아쉬람)에서 불가촉천민인 분노 치우는 사람의 우두머리가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았다. 어린아이에게 분노통은 어찌나 무거웠던지 제대로 다룰 수 없어서 꼬마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비노바는 이후 분노 치

우는 일을 직접 하게 되었다. 최고 계층인 브라만 계급이 분노를 치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새로운 일이었다. 마하트마 간디의 부인인 카스트루바 간디가 이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불평하자 그는 이렇게 반문했다.

“브라만이 분노 치우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있습니까?”

그는 이후 계속해서 분노 치우는 일을 솔선했고, 주거환경 개선을 멈추지 않았다

1948년 스승이었던 간디가 총격으로 사망하자 한동안 자신이 인도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였다. 그는 인도에서 일어나는 불평등과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비권위적인 사회건설을 구상했으며 인도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조직하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 3. 차별과 폭력이 없는 평등한 사회

영국으로부터 해방 후 인도가 혼탁해 있을 때 가난한 자들은 배고픔으로, 부자들은 폭동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는 인도 전역을 걸어 다니면서 공산주의자, 테러리스트, 부유한 사람과 빈민들을 만나곤 했는데,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최소한 이것만은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이상은 아직 어떤 나라에서도 실현된 일이 없고, 언제 실현될 수 있을지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다. 설사 우리가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인도가 독립을 얻고 참정권이 보장된 지금 무력에 먼저 호소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목적을 이루고 싶다면 무력을 포기해야 한다.”

그는 인도 대륙 전역을 다녔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설을 하였으며 사람들이 카스트와 계급 및 언

어와 종교의 장벽을 허물도록 촉구하였다.

비노바는 자신이 의도했던 사회운동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았다. 자신이 추진했던 일들이 정의롭고 건전한 일이었기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말년에는 마하라슈트라에 있는 아쉬람에서만 머물렀고 사회활동을 중단한 채 기도과 명상에만 전념하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는 치료를 거부한 채 80일간 단식을 수행하다 1982년에 생을 마쳤다.

비노바 바베는 마하트마 간디의 제자로 1940년 '비폭력 저항운동(사티아그라하)을 함께 이끌었고, '토지 헌납운동(부단)을 주도했다. 이 책은 '모든 경계를 허무는 사랑만이 변혁의 힘'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던 그의 내적인 명상의 삶과 외적인 활동을 두루 이야기하고 있다.



##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 숲과 시골 마을(집성촌)의 정취를 찾아서

- 10월 14일(토): 경북 봉화 석천정사, 석천계곡, 닭실마을(안동 권씨 집성촌)
-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기구 등(우천 예상시 우산 준비)
- 일반 참가자(비회원) : 45,000원 / 할인 혜택(맏고 향기롭게 후원회원&정기 봉사자, 길상사 신행단체회원, 길상사 신도증 발급자) : 35,000원 / 점심식사 포함(시골 마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 식사를 탐방 지역에서 해결합니다.)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맏고 향기롭게

### 봉사자와 함께하는 숲기행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상원사 적멸보궁

- 11월 10일(금) / 길상사 일주문: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출구: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출구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 참가 자격 : 본모임 현재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우선 접수(40명)
- 접수, 참가비 등 자세한 사항은 봉사팀별로 공지 및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제1회 사진공모전 시상식 진행하였습니다.

(사)맏고 향기롭게는 제1회 길상사의마음. 세상. 자연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여, 본선11점, 입선 35점을 선정하여 9월 24일 오전 11시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양현모 프로사진작가의 작품 심사 총평, 덕일 이사장님의 상장과 상금 시상, 수상 참석자에게 '비구, 법정法頂 : 근승량 한정사진집' 1부씩 선물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에는 눈 내리는 날 길상사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포근하고 안정된 구도로 표현한 채남재 씨의 '자비의 눈'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우수상은 법정스님의 진영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을 찍은 '존경합니다'작품을 낸 조은희 씨와 2016년 11월 길상사의 가을을 촬영한 김현우 씨의 '길상사의 가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밖에 '맏고 향기롭게'(박재석), '길상사 자연동경'(신상규), '길상사의 만추'(김철용) 우수상 3점 및 장려상으로 '진영각 가는 길'(이도은), '불심 님은 꽃무릇'(유유휈정), '휴식'(박해준), '가을 정취'(김병호), '응무소주'(김규선) 5점외 입선 35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작품은 2018년 달력으로 제작·배부할 계획이며 각종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작지만 알찬 녹색나눔장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시매장인 '맏고 향기로운 가게' 개점후 녹색나눔장터를 길상사 사중행사(초하루법회, 결제, 해제 법회 등)에 맞춰 작지만 알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직접 만든 천연 한방 비누뿐만 아니라 차약, 젤파스, 핸드크림, 모기퇴치 스프레이까지 시중에서는 천연 제품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품목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려움증, 근육통 부위에 바르는 젤파스는 천연 원료, 착한 가격, 효과 만점의 제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맏고 향기롭게 의류 리폼 봉사자분들이 한뼘한뼘 정성껏 만드신 에코백과 의류도 판매했는데, 에코백은 장터가 열릴 때마다 여러 번 구매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인기 상품이며, 패턴이 멋진 조끼 역시 신도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사무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녹색나눔장터를 작게나마 진행할 계획입니다.

###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사업 '나누는 기쁨' - 두 번째 집고치기 봉사활동 지원하였습니다.

경희대학교 해비타트 동아리 미라클이 '맏고 향기롭게'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8월 26일 두 번째 집고치기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집고치기 봉사에서는 벽지 도배와 장

판 교체를 주로 하고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집수리를 도와드립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매번 벽지와 장판을 구입해야 하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맏고 향기롭게'의 지원금으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의 재가담당 복지사의 도움으로 사전답사를 통해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 집안상태를 점검한 후, 봉사 당일 짐 옮기기, 기존 벽지 뜯기, 벽지 재단, 도배풀 만들기, 벽지 붙이기, 장판 깔기 등 모든 과정을 동아리원들이 직접 시공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고맙고 미안하신 마음에 "우리 딸도 이렇게 안하는데, 와서 다 좋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라고 거듭 말씀 하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맏고 향기롭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맏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맏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 활동

진인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이 지난 9월부터 둘째 일요일에서 둘째 토요일로 변경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에서 8시 30분에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진인 노인요양시설에 도착합니다. 차 안에서 봉사자들과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착하는 1시간



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릅니다.

지난 9월 9일은 오전에는 점심거리 식자재 손질과 주방 일손을 도와드렸고 오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놀이 봉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의 기억력이 되살아남을 목격할 때의 감동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들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쑥스럽고 어색하다가도 어느 순간 같이 박수치며 따라 부르게 됩니다. 비록 한 달에 한번이지만 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이 기다려지는 의미 있는 자원활동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봉사팀원들과 함께 꾸준히 참여하실 뜻있는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Maeng and Hangeumge 자원봉사팀은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있는 어르신 이용시설인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매일 2,000여명의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매주 월요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Maeng and Hangeumge 자원봉사팀뿐만 아니라 타 봉사단체도 함께 참여하는데 전체 참여 봉사자는 60~70여명입니다. 담당 복지사의 요청에 따라 각 봉사팀별로 점심 배식활동과 설거지, 정리정돈 등을 맡아서 진행합니다. Maeng and Hangeumge 자원봉사활동은 매주 월요일 진행되고 있으며,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Maeng and Hangeumge 자원봉사팀을 찾으시면 됩니다.(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Maeng and Hangeumge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사)Maeng and Hangeumge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가지를 나누고 3월에서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배추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농협상품권과 명절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1,000가구에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Maeng and Hangeumge 반찬 나눔 조리 활동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쉼 없이 해주시 수 있는 봉사자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전화 말벗 자원활동**

전화 말벗 자원활동은 Maeng and Hangeumge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전화 말벗 봉사자 정기모임은 매월 넷째

화요일에 길상사 다라니다원에서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모임을 갖는 이유는 어르신들께 유익한 정보에 대한 공부와 어르신들의 근황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전화 말벗 자원활동에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뜻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활동은 노인 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밑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봉사자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CMS 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Maeng and Hangeumge>**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10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특강 : 22일(넷째 일요일)/김병식(전 초당대 총장, 전동국대 부총장)/오전 11시/ 설법전
-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 : 29일(다섯째 일요일)/오전11시/설법전

**<세상을 Maeng and Hangeumge>**

- Maeng and Hangeumge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12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14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 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4일)/오후 1시30분/다라니다원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21,28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오후1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1시 30분/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아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전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 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일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 : 매일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찻마음(소식지)발송 : 매일 초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일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일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일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일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일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일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사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로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 3주 토요일
- **술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 무국
- **노래모임** :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시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7회차 기도가 10월 2일(월)에 입재되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 금강경 기도 6회차 회향

- 일시 : 10월 1일(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금강경 기도 7회차 입재

- 일시 : 10월 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추석합동차례

- 일시 : 10월 4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위패번호 1~400) 설법전(위패번호 401~)
-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율 참배 가능합니다.

### 보름기도

- 일시 : 10월 4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지장재일

- 일시 : 10월 7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10월 7일(토) 오후 6~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는 항상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 관음재일

- 일시 : 10월 13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0월 14일(토) 오후 8시 00분 ~10월 15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10월 20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중앙절

- 일시 : 10월 28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10월 예정이었던 종교연합 바자회가 성북구청 도로블록 설치 공사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10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금강경 기도 6회차 회향	10월 1일(일)	오후 2시	극락전
금강경 기도 7회차 입재	10월 2일(월)	오후 2시	극락전
추석합동차례	10월 4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설법전
보름기도	10월 4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0월 7일(토)	오전 9시 50분	지장전
다라니 기도	10월 7일(토)	저녁 6시	극락전
관음재일	10월 13일(금)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0월 14일(토)	저녁 8시	극락전
초하루법회	10월 20일(금)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중앙절 기도	10월 28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입시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 일요특강 '나의 길, 나의 삶'

10월 22일(넷째 일요일) 오전 11시 / 설법전

### 전 동국대 부총장, 전 초당대 총장 김병식 박사

김병식 박사님은 초당대 역사상 처음으로 총장을 연임하여, 학내 교육·복지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초당대 발전의 초석을 닦았다고 평가 받는 분입니다.

연세대 화학공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79년부터 2009년 2월까지 30년간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중앙도서관장, 공과대학장, 산업기술환경대학원장, 부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국막회회장,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사업단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공학한림원 기획사업위원장 등을 지낸 바 있으며,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수상했습니다.

## 제1회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입상작 발표회 및 시상식

10월 29일(다섯째 일요일) 오전 11시 / 설법전

글짓기 대회를 통하여 수행자이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이었던 법정 스님의 문학적 가치를 되새기고, 그동안 맑고 향기롭게 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중·장년층 회원이 아닌 어린이들의 참여 행사를 통해 맑고 향기롭게 정신을 보다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지난 9월 24일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가 심사위원(박형준(시인 동국대 국어국문문학과 교수), 홍용희(문학평론가 경희사이버대 교수), 함명춘(시인, 출판인))의 공정한 심사후 수상자 발표는 10월 18일(수)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며, 입상자 시상식은 10월 29일(일) 오전 11시 길상사 설법전에서 진행됩니다.

# 관심이 필요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고령층 어르신과 장애인 등 490여 가구에 매주 반찬 나눔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9년 12월,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들이 모여 100포기의 김장을 담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 당시 IMF외환위기로 인해 실직자로 전락한 가장도 문제였지만,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주변의 무관심 속에 사람들과 접촉을 끊고 외톨이가 된 노인들과 장애인의 삶이 더욱더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엄연히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하나둘씩 모른 채하며, 무의탁 노인 세대가 되어 버렸고, 세월이 흐른 오늘날은 경제적 여건을 떠나 혼자 사는 이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활동은 이러한 분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꾸준히 참여하는 봉사자의 자발적인 책임감과 자긍심 또한 매우 높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맑고 향기롭게와 뜻을 함께 하고, 책임감으로 참여하시는 여러 봉사자가 계시기에 힘든 여건을 인내하며 반찬 나눔 사업을 지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로 인해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 또한 고령화되어가고, 사회 분위기가 상층의 지속적인 참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만큼 힘든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도움을 드릴 대상자가 늘어나고, 나뉘야 할 일이 많기에 힘든 일도 맡아 해줄 젊은 봉사자의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주방기구 설비하는 분의 조리장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개선, 의견) 도움도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의 청빈의 가르침이 시민들의 나눔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